

코스피	코스닥
2573.80 (+14.01)	722.81 (+0.95)
금리 (한국채 9년)	환율 (원·달러)
2.253 (-0.029)	1394.60 (-10.70)



美 FDA 정책 수혜...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PO ‘대박’

FDA ‘동물실험 폐지’ 선언에
올해 바이오 기업 최고 공모가
기관 경쟁률 1066 대 1 기록
신약평가 ‘오디세이’ 수요 기대

오는 9일 상장을 앞둔,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올해 바이오 공모주 최고 흥행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오가노이드를 통한 새로운 평가술루션을 제공하는 이 기업에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최근 기관투자자 공모가를 2만 1000원에 확정했다. 공모가 희망밴드(1만7000원~2만1000원)의 최상단으로,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중 최고 공모가를 기록했다. 이번 전체 공모 물량의 75%인 90만주 모집에 총 2287개 기관이 참가하면서 106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달 25~28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서 총 858.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약 2조 7000억원의 증거금이 모였으며, 전체 청약 건수는 14만 6884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FDA의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정책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FDA는 지난 달 단일클론항체 및 기타 약물에 대한 동물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정책으로 기존 의약품 개발 실험에 활용됐던 동물실험은 인공지능(AI) 기반 계산 모델과 실험실에서 만든 인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테스트를 이용해 개선되거나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신소재 평가술루션 ‘오디세이(ODISEI)’를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도 공급 중이다. ▲오디세이-ONC(종양) ▲오디세이-GUT(장) ▲오디세이-SKIN(피부) 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총 50여건의 수탁계약을 맺어 왔다.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해 미세한 인체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할 수 있어, 기존 시험법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던 질병 치료제의 효능과 기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이번 FDA의 조치로 오디세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는 6월 13~14일 개최될 글로벌 오가노이드 콘퍼런스 ‘ODC’25를 통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정밀 의료와 맞춤형 치료제의 연구 성과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토허제 재시행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신고가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진행대에서 잠실 주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의 잠실 장미아파트와 주공5단지에서 신고가가 집중됐고, 잠실주공5단지 82.6㎡가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강남구 압구정에서도 거래 22건 중 14건(64%)이 신고가였으며, 개포동의 거래 4건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역시 한보미도맨션2차 190㎡가 60억원, 개포우성1차 127㎡가 50억5000만원, 은마아파트 76㎡는 31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이어갔다. /뉴시스

을 소개할 계획이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는 “당사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확립하고, 나아가 오가노이드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향후 사업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삼성 하만, 9년 만의 M&A B&W 인수로 명가 굳힌다

데논, 마란츠, 폴크, 데피니티브 등
美 명품 오디오 브랜드 대거 확보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하만)을 통해 세계적인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바위스앤윌킨스(B&W)’를 포함한 미국 마시모(Masimo)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한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하만은 6일(현지 시간) 마시모와 3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약 9조원에 하만을 인수한 이후 9년 만의 대규모 인수합병(M&A) 건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하만은 B&W를 비롯해 데논, 마란츠, 폴크,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등 고급 오디오 브랜드 5개를 새롭게 확보하게 됐다.

B&W는 1966년 영국에서 설립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고품질 사운드로 유명하다. 대표작인 ‘노틸러스’ 스피커는 대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데논은 세계 최초 CD플레이어를 개발한 115년 전통의 브랜드이며, 마란츠는 프리미엄 앰프·리시버 시장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

하만은 현재 JBL, 하만카돈, AKG 등 다양한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터블 오디오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로 글로벌 1위를 기록 중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차량용 지능’을 주제로 한층 개인화된 차량내 경험을 제공하는 지능형 상황 인식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이다. 이번 인수로 컨슈머 오디오뿐 아니라 차량용 오디오 부문에서도 B&W 등 명품 브랜드를 추가하며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한다.

하만은 이번에 인수한 브랜드들을 자사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과 통합해 2025년 608억달러에서 2029년까지 약 7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컨슈머 오디오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브 로저스 하만 라이프스타일 사업부문 사장은 “하만은 75년 역사의 오디오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정상급의 위치로 성장해 온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여기에 또 하나의 명품 오디오 B&W까지 확보해 명실상부한 오디오 명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대선 후보 연기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장동 재판도 6월24일로 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엔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른 재판도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장동 재판도 6월24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만일 이런 식으로 모든 재판이 미뤄질 경우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은 자유로워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면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에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 변경에 대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단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대선 중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이어 위증교사·대장동도 기일 변경 신청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한-미 협의 시 우리 국민 최우선 ‘체코 원전 문제없다’ /사진 뉴시스

▲북한 김정은, 포탄 생산공장 찾아 생산 증대 지시
▲나경원, 김문수 만나 “대승적 양보하고 구체적인 단일화 로드맵 제시해달라”

▲권성동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
▲민주 조승래 “대법원 선거 개입 의혹 ‘청문·특검’ 절차 진행할 것”